



하나님은 참 신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2-16절

여러분은 예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 아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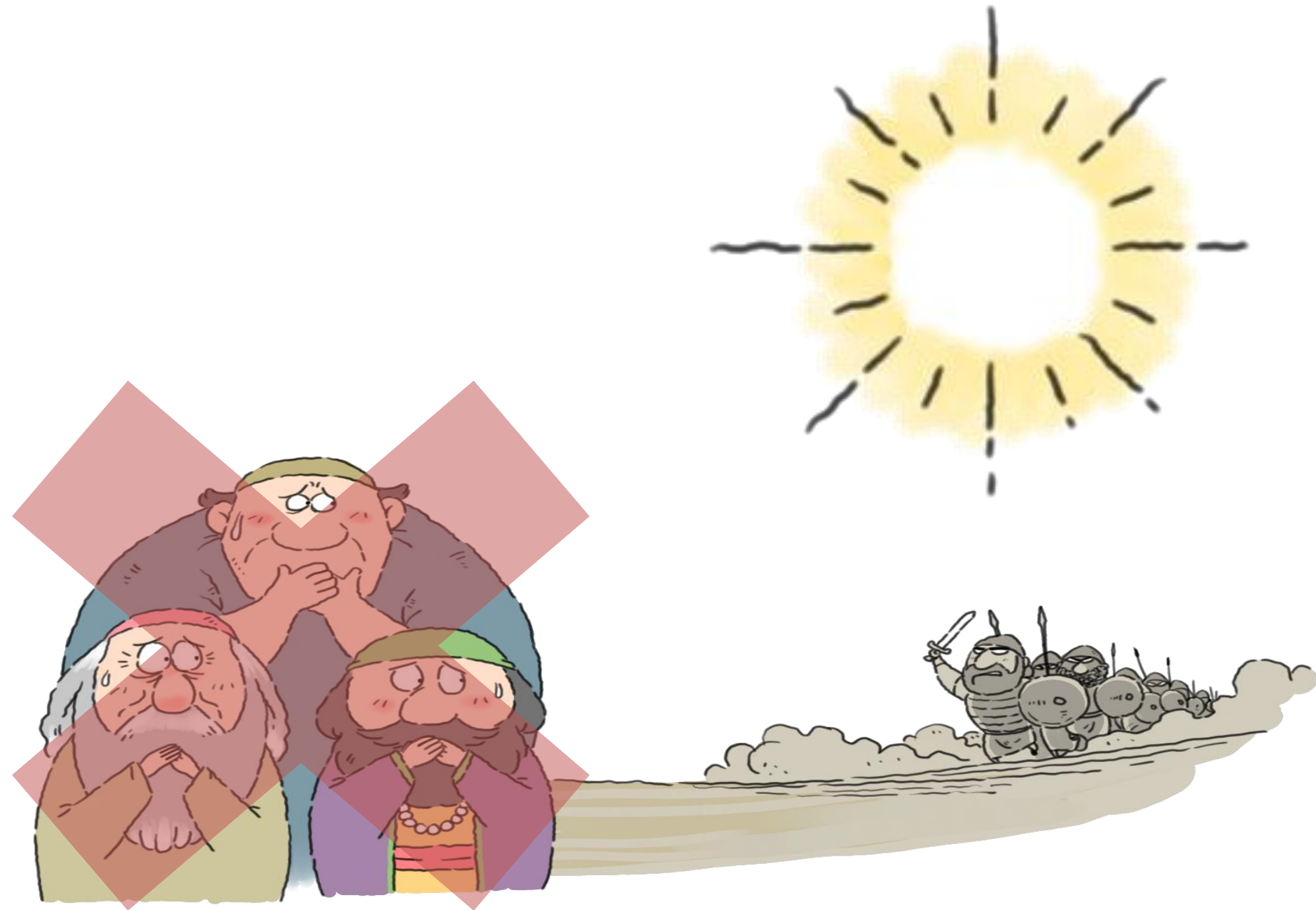




예전 사람들은 살면서 **필요한** 부분에
각기 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출처 / 「글이 된 말씀」 김애란 저 _ ‘츠’ 페이지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힘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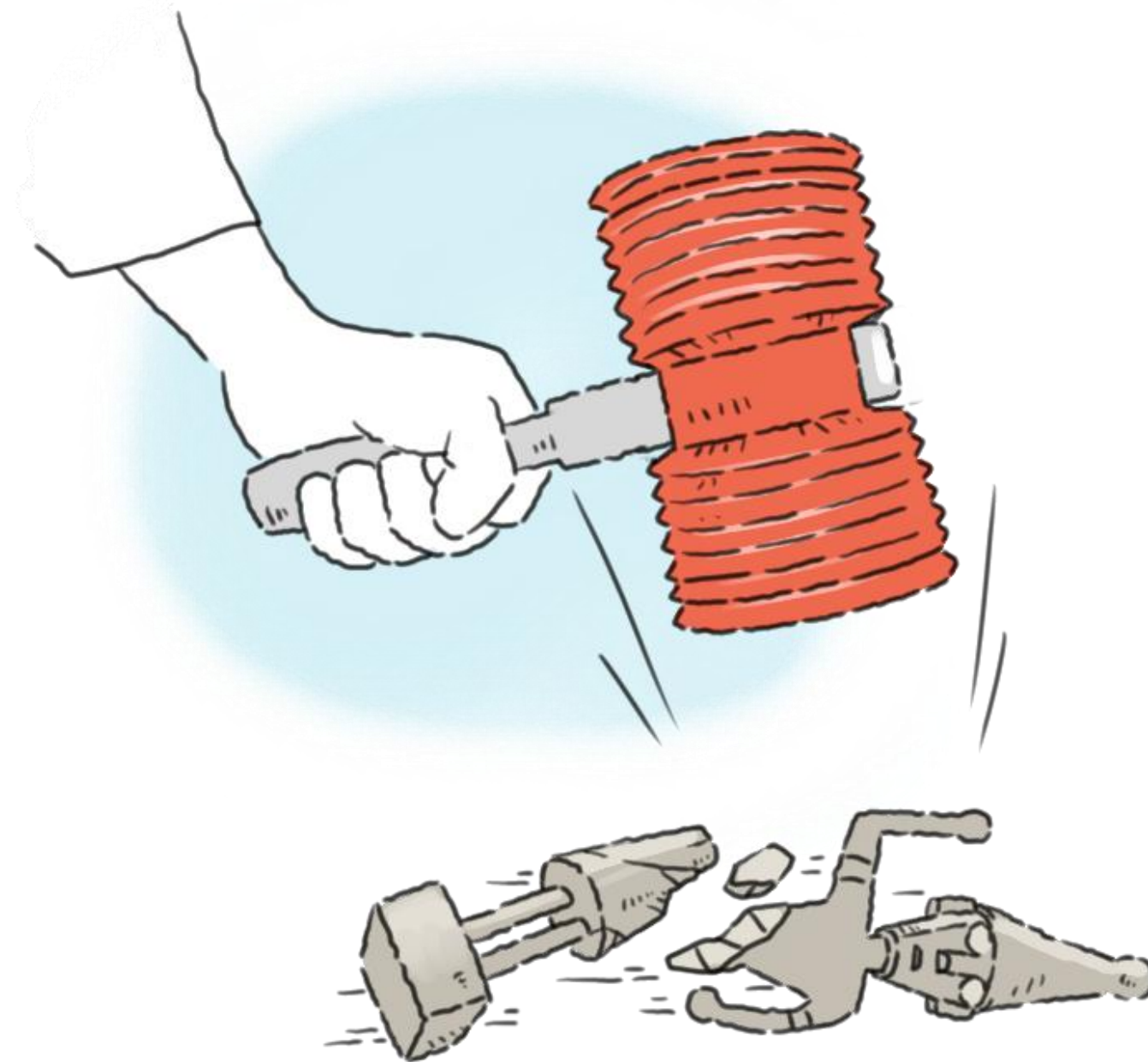
사람이 나무와 돌을 잘라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상은 생명이 없어서 사람을
돕거나 구해 주지 못해요.



나에게 하나님만큼 좋아하고
기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